

김옥애 동시, 김성범 곡에 담아 “우리 함께 노래해요”

광주일보 신춘 출신 두 작가

창작동요 100주년 기념

동요집 ‘어린이 도서관’ 발간

22일 미래교육재단서 북콘서트

올해는 동요 ‘반달’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24년 윤극영이 ‘어린이’지에 ‘반달’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창작동요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23년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어린이날’을 만들었으며, 윤극영과 함께 어린이 문화단체 ‘색동회’를 꾸려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창작동요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요집 ‘어린이 도서관’(창개구리)이 출간돼 화제다. 특히 이번 동요집은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동화작가 김옥애(1975년), 김성범(2001년)이 협업해 작품집을 완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더욱이 김성범 작가가 당선됐던 2001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는 김옥애 작가가 맡았던 인연으로, 두 작가는 오랫동안 문학을



창작동요 100주년을 기념해 동요집 ‘어린이 도서관’을 펴낸 김옥애(왼쪽)·김성범 동화작가.

매개로 사제의 정을 이어오고 있다.

동요집은 김옥애 동화작가가 동시를 썼으며 김성범 동화작가가 곡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동요는 모두 15편. 각각의 작품에는 유창히 작家的 일러스트가 삽입돼 있다. 무엇보다 동시와 악곡, 그림이 실린 동요집 발간은 흔치 않은 사례로 이번 책 발간은 이례적이며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김옥애 작가는 “지난 봄 문학행사장에서 김성범 작가를 만나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집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동요집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범 작가 또한 “선생님의 제안을 받고 틈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정이었지만 선뜻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저에게는 100년 만에 만나 생겨날 큰 일이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옥애 작가는 고창 강진과 광주를 오가며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75년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신춘문예와 7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동화집 ‘흰민들레 소식’, ‘봉긋방 손님의 선물’, ‘숨어 있는 것들’ 등을 펴냈다. 한국 아동문학상, 소천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성 도깨비마를 유아숲체험원 대표인 김성범 작가는 늘 ‘어린이들과 숲에서 놀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숲으로 가자!’, ‘도깨비가 그림책 읽는 밤’ 등을 발간했으며 제3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을 수상했다. 창작동요 음반 ‘동요로 읽는 그림책’ 등을 펴냈고 ‘책이 찜찜하 찜찜하’이 2013, 2017년 개정 초등국어(1-2)에 실려 있다.

“아주 오래 전에 김 작가가 제 동시 ‘금붕어’를 동요로 만들어 줬지요. 그걸 불러 보면서 다른 동시들도 작곡을 해 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바람이 이뤄졌네요. 동화 쓰기로 인연을 맺은 우리가 동요로 더 깊은 인연이 된 셈이

지요.”(김옥애)

“김옥애 선생님은 저에게 아동문학의 길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저의 스승이시지요. 이런 선생님과 제 이름이 나란히 놓였으니 저는 이것으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어른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면 해요.”(김성범)

동요집에서는 ‘쓰릴 곳’, ‘승강기 안에서’, ‘땀방’, ‘꿀방 위에 누웠다’, ‘큰 우산’, ‘비슷비슷’, ‘고백’ 등 아이들 마음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표현이나 리듬 등이 어른들이 함께 불러도 좋을 만큼 신선하며,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큐알코드가 부착돼 있다.

“심부름 가다가/ 만난 비/ 우산이 없다// 옷이 젖어/ 잠깐/ 큰 나무 아래에 섰더니// 춤추듯/ 나무이파리들이/ 우산 되어/ 쉬었다 가라 한다”

동시 ‘큰 우산’은 어린 시절 한번쯤 경험해볼 만한 추억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심부름을 가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당황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큰 나무 밑으로 달려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던 일은 아련한 기억 속에 드리워져 있다. 나무 이파리 사이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무가 전하는 소리를 벗삼아 꿈을 꾸던 기억은 여전히 새롭게 다가온다.

김옥애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동요가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노래가 즐겁게 불려지면 좋겠다”며 “도서관을 드나들 듯 즐겁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범 작가는 “‘동요’는 어린이의 마음이 먹는 음식인데,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성인문화에 종속되어 버린 걸 인식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른들과 함께 동요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도서관’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오는 22일 오후 7시 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연의 ‘모든 것은 빛난다’

정명숙 초대전, 29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자연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풍성함, 그리고 가을의 쓸쓸함, 겨울의 여백의 미는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은전이다. 어느 계절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자체로 빛난다. 자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캔버스인 셈이다.

정명숙 작가가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다. 오는 29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정 작가는 “캔버스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한지를 붙여가며 작업을 했다”며 “작업을 하는 동안 한두 겹 접는 한지가 발하는 색감이 어떻게 구현될 지 설레고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화순을 오가며 봤던 빛나던 자연의 풍경은 작업을 추동하는 힘이 됐다”며 “그것은 더러 영감으로, 더러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자 자양분으로 나를 북돋웠다”고 덧붙였다.

얇은 한지를 동그랗게 잘라 무한반복으로 붙여가는 작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의 힘은 크다. 사소한 일상이 모여 저마다의 삶을 이루듯, 작고도 큰 동그라미들은 그렇게 어울려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전시장에서 보게 되는 ‘봄’, ‘夏’, ‘秋’, ‘冬’은 색감과 조형으로 시선을 붙든다.

화사한 봄, 연분홍 빛깔의 꽃들이 수놓은 듯한 봄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한다. 여름(夏)의 푸르름과 파랑의 시원함은 답답한 가슴을 씻어주며, 가을걷이가 끝난 빈 들녘을 묘사한 듯한 가을(秋) 풍경은 아늑함과 쓸쓸함이라는 이질적인 감성을 선사한다. 모든 것이 마르고 비어버린 겨울(冬)은 생의 겸허함과 낯춤의 의미를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

춘추동 외에 또 하나의 작품이 존재를 알려준다. 작가가 ‘그림모내기’라고 표현 ‘전’(田)이 그걸. 봄과 여름 사이 ‘모내기 시즌’을 하나의 계절로 은유했다. 아마도 모내기로 일



‘春’

키는 ‘田’이 있기에 작가는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라. 동일하게 그 ‘田’은 작품을 보는 이에게 저마다의 ‘모내기’를 사유하게 하는 것일 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속 뮤지컬 ‘음악, 읽어주는 콘서트’

광주 서구, 28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첫 공연

영화음악을 뜻하는 OST는 배우에서 영상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언더 스코어(악보)’라고 불린다.

OST는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등 작품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류이치 사카모토 등의 씨네 뮤지션을 감상하는 콘서트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음악, 읽어주는 콘서트(이하 음읽콘) 시리즈의 첫선으로 ‘MUSICAL IN MOVIE STORY-영화 속 뮤지컬 이야기’를 오는 28일 오후 7시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펼친다. 행사는 영화 속에 삽입됐던 씨네 뮤지컬 ‘OST’를 감상하고 거기에 얽힌 뮤지컬 공연까지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명작 애니메이션 필름 중 뮤지컬 넘버들로 레퍼토리를 구성(추후 확정)했으며, 해설을 곁들여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단국대 뮤지컬 전공을 졸업한 추연성 배우를 비롯해 JTBC 웹드라마 ‘모먼트’ 등에서 열연한 이성민 배우가 출연한다. 뮤지컬 배우 송준, 신현지, 권소이, 허다미도 관객들을 만난다.

아울러 서빛마루문예회관은 3월 30일(오후 7시)에는 음읽콘 두 번째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 밴드들의 음악을 소개하는 ‘The Beatles VS QUEEN’을 펼친다. 이어 4월 27일 ‘해설이 있는 미술관 음악회’ 등도 기획 중이다.



권소이

추연성

이준행 홍보담당자는 “영화와 음악을 보듯 종합적으로 감상하는데, 이번 행사는 ‘영화 음악’ 자체에만 주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영화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때론 감초 역할을 맡는 영화음악을 뮤지컬 배우들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관람료 3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하는 학생들.

(국립나주박물관)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역사·문화여행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채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박물관에서 찾은 나의 꿈’...

박물관은 과거의 웅성깊은 역사와 문화 자료를 보관, 전시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역사와 관련된 교육은 유서 깊은 문화와 삶의 양식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이 마련 등을 모티브로 역사, 문화, 여행,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3가지.

먼저 유아 대상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는 ‘신촌리 금동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협동형 놀이 교구인 ‘열려라, 독널!’을 학급별로 제공해 이후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유산은 전시실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학교가 박물관에 방문, 문화유산을 매개로 체험하는 시간이다.

청소년 대상 ‘박물관에서 찾은 나의 꿈’은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접수는 19일부터 선착순.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 참조.

김상태 관장은 “울해도 나주박물관은 마한 등 역사를 매개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박물관에서 직접 대면으로 운영하는 행사인 만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공연 티켓판매 1조2697억원...영화 매출액 처음 앞질러

작년 공연 티켓판매액이 영화계 총매출액을 근소하게 넘어섰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일 ‘2023년 공연시장 티켓 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공연계 티켓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영화계 총매출액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공연예술통합전시상망(KOPIS)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음악·연극·클래식·뮤지컬 등 공연계 티켓 판매액인 약 1조2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3.5%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영화계 총매출액은 1조2614억 원에 그쳤다.

영화 ‘서울의 봄’ 등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영화시장 전체는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평균 매출액(1조8282억원) 선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편 공연계 현황은 뮤지컬과 대중음악 콘서트의 약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음악과 뮤지컬이 티켓판매 매출 중 81.6%로 흥행에 가세했다.

이러 대중음악(45.4%), 뮤지컬(36.2%) 순이다.

다만 전체 공연 시장에서 서울 공연 건수 비율은 46.1%, 티켓 판매액은 68.1%로 공연의 ‘서울 집중화’는 여전했다. 다만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지역은 시 단위에서는 광주로 공연건수(50.7%), 티켓매수(52.1%), 티켓판매액(89.0%) 증가세를 보였다.

티켓 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중 광주 공연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전국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 ‘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광주’는 5000석 미만 규모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성료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연합뉴스